

‘무력 충돌’ 인도-파키스탄 극적 휴전 합의…미국 등 중재

“전면적·즉각적 효력에 동의”
6년만 군사충돌 3일 만에 종식
트럼프 “양국, 상식·지혜 발휘”

전면전 작전까지 치달으며 무력 충돌을 이어 온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10일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인도와 파키스탄 현지 언론과 AP·AFP 통신 등을 종합하면 이삭 다르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파키스탄과 인도는 즉시 발효되는 휴전에 합의했다”며 “파키스탄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항상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S. 자이산카르 인도 외무장관도 엑스를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은 오늘 발포와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인도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에 대해 확고하고 타협하지 않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나라가 휴전에 합의한 것은 양국이 무력 충돌을 벌인지 3일만이다.

인도는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있었던 총기 테러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지난 7일 ‘신두르 작전’을 개시, 파키스탄 9곳에 미사일 공격을 발했다.

이후 양국은 드론 등을 이용해 상대군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으며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을 사이에 두고 포격도 주고받았다.

또 파키스탄은 이날 오전 신두르 작전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분야누 마르수스’(Bunyanun Marsoos) 작전을 개시, 인도의 미사일 저장 시설과 공군기지 등을 공격했다.

이처럼 양국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양국은 상대가 도발을 중단하면 우리도 중단하겠다며 자제하는 자세를 보였다.

인도는 카슈미르 총격 사건에 대한 보복성 대응이 필요했고, 파키스탄은 인도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반격이 필요했는데 이날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응으로 두 나라가 한 번씩 ‘보복’을 단행했다는 명분을 얻은 만큼 양국이 휴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다르 장관은 이날 현지 TV 방송과 인터뷰에서 “인도가 조금이라도 제정신이라면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이며 인도가 멈추면 우리도 멈출 것”이라며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고, 인도 군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파키스탄 측이 화답할 경우 확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휴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제 사회 중재 작업도 두 나라의 휴전 합의에 힘을 보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 긴 협상 끝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두 국가가 상식과 큰 지혜를 발휘했음을 축하한다. 이 문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이날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인도와 파키스탄 양국과 통화해 “긴장 완화를 위한 방



10일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에서 시민들이 인도와 휴전 협정 체결 소식에 폭죽을 터트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을 모색하고, 향후 충돌을 피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 개시를 위해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양국 당국자들과 직접 만나 휴전과 확전 자제를 촉구했고, 중국도 양국에 자제를 요청해왔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에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 달라며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한 직접 대화를 촉구

했다.

두 나라의 이번 충돌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에서 비롯됐다. 당시 카슈미르 무장세력은 관광객 등을 상대로 총기 테러를 일으켰고, 이 일로 26명이 사망했다.

인도는 파키스탄을 테러 배후로 지목한 뒤 인도 내 파키스탄인 비자를 취소하고 파키스탄과 상품 수입·선박 입항·우편 교환을 금지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 특히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터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하며 파키스탄을 압박했다.

파키스탄은 테러 연관성을 부인하며 인도의 물줄기 차단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어 양국은 LoC를 사이에 두고 집중 포격과 드론 공격 등을 이어갔고, 이에 따라 양국 민간인 수십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푸틴 “15일 이스탄불서 만나자” 제안

‘30일휴전’ 우크라 제안후 발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대화의 목적이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새로운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단순히 서방의 압박에 맞선 시간끌기용인지 아니면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그의 제안에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에 따라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타스, 스포트니크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벽 크렘린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 당국에 오는 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진지한

협상을 할 것”이라며 “그 목적은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을 통해 러시아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도 준수하는 새로운 휴전, 진정한 휴전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거듭 말하지만 이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첫 걸음이 될 것이며 무력 분쟁을 이어가기 위한 전조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제안한 협상이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인 2022년 결렬됐던 협상의 ‘재개’라고 표현했다.

3년을 넘기며 장기화한 전쟁과 지지부진한 휴전 협상이 러시아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휴전을 제안해 왔고, 한 번도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2022년의 협상을 방해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였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페루 빈민가서 오랜 사목
“평화, 여러분과 함께 있길”

세계적 혼란과 갈등의 시기에 미국 출신의 첫 교황이 탄생했다.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선출했다.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이틀만이자, 네 번째 투표 만에 결정됐다.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한다.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처럼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1955년생으로 미 시카고 태생인 레오 14세 교황은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일원이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교황을 배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레오 14세는 미국 국적이지만 20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했으며, 2015년 페루 시민권도 취득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됐다.

미국인이면서도 빈민가 등 변방에서 사목한 그의 발자취가 교황 선출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 때문에 미국인 출신 교황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AP 통신은 해설했다.

연합뉴스

일 방위백서 “새로운 위기시대 돌입”

“북러협력, 안보에 다층적 영향”

일본 방위성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 초안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사 위협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방위백서 초안은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가 크게 변화해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히 미중 경쟁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 군사 동향에 대해 “안보상 중대한 우려”라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과 그러한 시도는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러시아와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안전보장 환경에 다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위백서 초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했다고

분석하고 “종래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동중국해 등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는 데 대해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만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시 군사 활동을 통해 실전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극동 방면에도 최신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7월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방위백서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해경국 헬리콥터가 지난 3일 센카쿠 열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새교황에 ‘첫 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첫 미국 출신 '레오 14세' 새 교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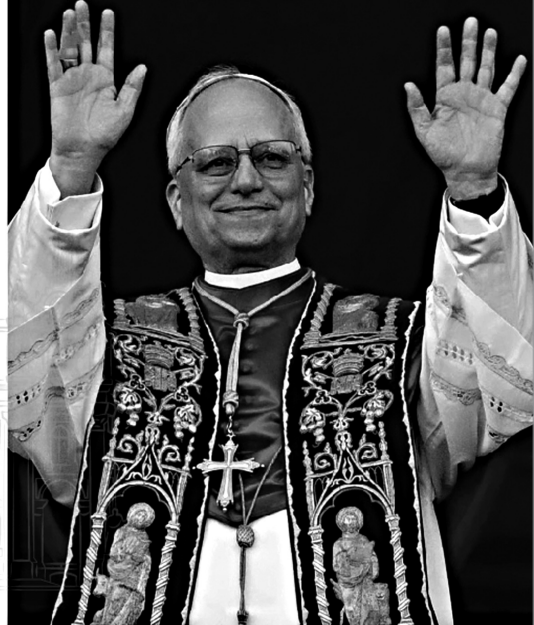
- 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이탈리아어·프랑스어 사용
- 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 측근으로 활동, 중도 성향으로 평가
- 2027년 세계청년대회(WYD) 서울 개최시방한 예정

- 1955년 미국 시카고 출생 및 성장
-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신학교 입학, 교황청 종립 안젤리쿰 대학에서 교회법 공부
- 1982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제 수품
- 페루 북서부 추루카나스 교구에서 10년간 사목
- 2001년부터 12년간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장으로 활동
- 2014년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 교구(빈민가·농촌지역 관할) 파견
- 2015년 페루 시민권 취득, 페루 대주교로 임명
-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 바티칸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주교 선출 등 인사 총괄)
- 2025년 5월 8일 새 교황으로 선출

 연합뉴스 사진:AFP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69세)

- 5월 8일 콘클라베 이틀째(네 번째 투표만)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 즉위명 '레오 14세'
- 9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미사 공동 집전
- 11일 성 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서 첫 축복 메시지 발표
- 12일 전 세계 언론인과 첫 공식대면
- 선출 일주일 이내 교황 즉위 미사 거행 예정



미중, 무역협상 첫날 10시간 ‘마라톤 협의’

양보 없는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 첫날 약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하며 관세 인하 등을 협의했다. 구체적인 첫날 협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

는 가운데 ‘관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날 일정 종료후 “큰 진전”(great progress)을 이뤘다고 소개함에 따라 당초 예정한 회의 마지막 날인 11일 모종의 합의 도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콧 배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8세기에 건축된 제네바의 유명 저택 ‘빌라 살라딘’(현 유엔 제네바 사무소 주재 스위스 대사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오후 8시께, 양측이 첫날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하면서 회의는 11일 속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